

광주시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대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노인 보호구역 늘리고 안전시설 보강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 적성검사 기간 단축 정부에 건의

같은 기간 7817건에서 7409건으로 462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다. 특히 2018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3명으로, 전체 사망자(75명)의 57.3%에 달하고 있는 등 피해 역시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4월까지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동시장, 경로당 등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인보호구역은 신청에 따라 지정됐지만,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광주시가 급증하는 노인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또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고령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978건에서 2018년 1127건으로 149건이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3월부터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취약지역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노인다중이용시설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인지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운전을 위해 실버마크를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교통사고다발구간 인근 경로당과 폐지 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여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찾아가 실시하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정부에 고

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받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에서 3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간도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에서 2년으로, 75세 이상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송상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는데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국 최상위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 성과 보고회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장기적 지원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의제 발굴과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하여 각 마을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은 '한새봉두레',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농성1동주민자치회', '심시일만남마을학교' 등 4개 단체가 추진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광호 제3대 광주시장 71년만에 재조명

독립운동...납북으로 잊혀져 1990년 독립운동 애국장 서훈 광주시청에 초상화 제작 계획

광주시가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다가 납북으로 그 존재가 잊혀졌던 제3대 정광호 광주부윤(현재 광주시장)을 재조명했다.

12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3·1절 100주년을 맞아 최근 시청 중회의실 역대 광주시장 사진게시판에 정광호 부윤의 초상화를 게시했다.

그동안 정 부윤에 대한 자료와 관심이 부족해 초상화마저 없었다. 이에 광주시는 최근 정 부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그의 업적을 정리하고, 초상화를 만들었다.

납북 분단과 이념 갈등으로 잊혀졌던 정 부윤은 지난 1990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운동 애국장 서훈을 받으면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다.

정 부윤이 광주시장을 지낸 지 71년만, 서훈을 받은 지 29년 만에 광주시청에 초상화가 내걸렸다.

정 부윤은 1987년 광주 사동에서 태어나 1912년 광주공립소학교(현재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성관립사범학교를 마치고 광주농주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일제강점기 동경에서 유학했던 정 부윤은 1919년 2·8운동, 동경 조선청년독립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조국의 독립운동에 나섰다. 또 최현영, 김강 등과 함께 광주 독립만세운동을 기획했던 그는 3·1운동 직후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중국 상해에서 활동했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교통부 차사와 교통부 국장을 거친 정 부윤은 1927년 귀국했다. 이후 1947년 한국민주당 창당발기인을 계기로 1947년 6월부터 1948년 5월까지 고향인 광주에서 제3대 부윤



이용섭 광주시장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정광호 제3대 광주부윤(현 광주시장)의 초상화를 걸고 있는 모습.

을 역임했다. 1948년 광주 최후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군에 연행돼 납북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희생으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던 분들이 계셨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은? 15일 DJ센터서 토론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에너지계획이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된 계획으로 세부 행동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에너지법 7조에서는 5년마다 5년 이상

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의무를 근거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이 작성된다.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에너지분야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재가 소장(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이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지역에너지계획의 현재적 과제'라는 주제로 지역에너지계획의 특징과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발표한다. 또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너지계획'이라는 주제를 맡은 김창훈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장연주 광주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끈다. 황철호 박사(국제기후환경센터), 송승현 팀장(녹색에너지연구원), 김종필 팀장(광주환경운동연합)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포럼과 관련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greeng21.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협의회 사무총국(613-4173)으로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대리운전기사 두번째 노조 인가

광주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설립을 잇따라 허가했다. 시는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고 지난 8일 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리운전 노조 설립 허가는 지난 2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허가는 시가 광주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노사상생도시 실현, 노동존중 광주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지역 대리운전 회사는 35곳, 대리운전 종사자는 3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할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분쟁,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광주시 25일 일일상담실 운영

광주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문상담기를 초청해 25일 오후 2시부터 시청 2층 복지건강국 민원상담실에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은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12월까지 흡수달마다 운영된다. 상담 희망자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상담자 명단이 확정되면 광주시로부터 개별 안내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일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일일상담실 운영으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재난취약 54곳 해빙기 안전점검

광주시 북구가 해빙기 재난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12일 '두암동 급경사지 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등 주민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 현장은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한 경사면 일부가 유실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복구공사를 진행했던 곳이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두암동 등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 총 5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및 유지관리 상태, 급경사지 암반·토사면 균열·침하, 상부 비탈면 낙석, 주변 배수시설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훔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